

수술 전 정보제공이 학령전기 편도선절제술 환아 어머니의 불안, 불확실성 및 수술 후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the Pre-Operation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Anxiety and Uncertainty of Mothers with a Pre-school Child of Tonsillectomy and their Satisfaction with Post-operation Nursing

정경숙*, 박진옥**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Kyeong-Sook Jeong(jksbook@cs.ac.kr)*, Jin-Ock Park(nurse895@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수술 전 정보제공이 학령전기 편도선절제술 환아 어머니의 불안, 불확실성 및 수술 후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연구이다. 자료수집은 S종합병원에서 편도절제술을 받은 학령전기 환아의 어머니로 실험군 19명, 대조군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군에게는 수술에 따른 통상적 교육과 함께 소책자를 이용하여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이 직접 간호사실에서 1:1 개별로 평균 20분 정도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대조군에게는 통상적 교육만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χ^2 -test,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test를 이용하였다. 수술 전 정보제공은 대조군과 실험군의 불안($U=104.5, p=.015$), 불확실성($U=83.5, p=.002$)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수술 후 간호만족도($U=109.5, p=.022$)에도 유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수술 전 정보제공은 학령전기 편도선절제술 환아 어머니의 불안, 불확실성 및 수술 후 간호만족도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반복연구와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한 정보제공의 효과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 중심어 : | 정보제공 | 불안 | 불확실성 | 간호만족도 |

Abstract

This study i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 and post-test design research whose purpose was to determine what effects the pre-operation provision of information has on the anxiety and uncertainty of mothers with a pre-school child of tonsillectomy and nursing satisfaction after the oper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mothers whose child underwent tonsillectomy at S general hospital. For the collection, those mothers were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respectively consisting of 19 and 20 members. The experimental group was provided general education about the operation. In addition, they individually received information about the procedure that the researcher and an assistant provided on one-to-one basis for about 20 minutes, in which brochures containing the information were used. While, the control group was provided only general education as mentioned above. For data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χ^2 -test, Fisher's exact test and Mann-Whitney U-test. The pre-operation provision of information was found having brough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in their anxiety($U=104.5, p=.015$) and uncertainty($U=83.5, p=.002$) as well as their satisfaction after the operation($U=109.5, p=.022$). The findings of this study strongly suggest that information provision before the operation is positively effective in reducing the anxiety and uncertainty of mothers with a tonsillectomy child and increasing their nursing satisfaction after the operation. These effects need to be more verified through repetitive and subsequent researches and by using many other methods of information provision.

■ keyword : | Provision of Information | Anxiety | Uncertainty | Nursing Satisfaction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편도선 절제술은 우리나라 아동에게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수술 중 하나로, 편도선의 비대로 인하여 상기도의 감염과 코 막힘,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나 중이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부비동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잦은 편도선염으로 인해 아동의 발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행해진다[1].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편도선 절제술은 1년에 40,000건 이상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그 중 9세 이하 아동의 수술 건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2]. 뿐 만 아니라 입원기간 단축과 조기퇴원이 가능하여 수술 당일 퇴원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학령전기 아동에게 수술이라는 행위는 부모와의 분리, 신체적 통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율감 또는 조절감의 상실,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해야 함으로 인해 성인에 비해 더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4]. 또한 학령전기 아동은 치료나 질병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많으며, 신체상 왜곡과 물활론적 사고를 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나쁜 생각에 대한 벌로써 인지함으로써 성인에 비해 더욱 정서적 손상을 입기 쉽다[5]. 뿐 만 아니라 아동의 수술은 가족에게도 스트레스가 되는 큰 사건이며[6], 특히 부모의 불안은 아동의 불안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5]. 또한 수술을 대기 중인 아동의 부모는 수술을 앞둔 아동이 겪을 고통 및 아동과의 분리에 대한 공포로 더 큰 긴장과 불안의 연속선상에 있게 된다[7]. 아동은 성인과는 달리 부모의 불안 자체가 아동에게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끼침에 따라 수술을 앞둔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질병에 대한 정보 결핍으로 공포와 불안이 많이 발생하며, 부정적인 정서반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행동들이 아동에게 전달되어 아동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킨다[8]. 이렇듯 부모의 정서, 태도, 공포, 걱정 등은 환아에게 쉽게 전달되므로, 부모의 정서적 안정이 환아의 간호에 중요하여[9] 부모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는 필수적이다[10].

한편, 불확실성은 질병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질병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불안감, 질병자체로 인한 불편감 등을 야기하며, 치료자와의 관계에 작용하여 질병의 진행과정동안 가족에게 불안 및 두려움,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11]. 특히 개인이 상황을 잘못 인식하거나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을 때 불확실성이 발생되며, 정보가 제한된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불안도 증가한다[12].

정보란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대상자가 기대하는 활동을 사전에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일반화된 절차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건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반응을 감소시키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6]. 수술을 앞둔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확실성은 불안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13] 수술환자나 특수 검사를 실시하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이 시도되어야 하며[6],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간호정보제공은 간호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4][15].

최근 다양한 교육매체를 이용한 정보제공 간호중재법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적용은 잘 되고 있지 않다.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충분한 간호정보나 중재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임상현장이 너무 바빠 환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16]. 그러나 소책자를 이용한 정보제공은 지식의 기계적인 전달이 아닌 환자와 간호사 사이의 인간관계에 있어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소책자는 비디오패나 컴퓨터 등의 매체 활용을 위한 공간 및 시설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못한 많은 임상현장에서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쉽게 적용가능한 교육방법이다[17].

지금까지 환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환아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18], 수술 전 정보제공이 수술 후 통증과 불안,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15], 개심술 환아 어머니의 지식, 불안 및 대처행동[19], 암 환아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20], 시각적 정보제공이 편도선절제술 환아와 어머니의 불안 및 환아 역할행위에 미치는 효과[21] 등이 있으나 학령전기 환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편도선 절

제술을 받는 학령전기 환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술 전 정보제공을 한 뒤 불안, 불확실성, 수술 후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수술 전 정보제공이 편도선절제술을 받은 학령전기 환자 어머니의 수술 후 불안, 불확실성 및 수술 후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 1가설: 수술 전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은 수술 전 정보제공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불안정도가 낮을 것이다.

제 2가설: 수술 전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은 수술 전 정보제공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불확실성 정도가 낮을 것이다.

제 3가설: 수술 전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은 수술 전 정보제공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간호만족도 정도가 높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수술 전 정보제공이 학령전기 편도선절제술을 받은 환자 어머니의 수술 후 불안, 불확실성 및 수술 후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3.1.7을 이용하여 t-test 통계법으로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 효과크기 .50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 필요한 대상자 수는 실험군 21명, 대조군 21명으로 총 42명이었다. 연구대상자는 S종합병원에서 편도선절제술을 받은 만 3세에서 만 6세까지의 학령전기 환자의 어머니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입원기간 내내 환자 간호를 담당하

며, 정보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능한자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선정하였다. 뇌손상이나 언어, 시력장애 및 다문화 여성 등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실험군 23명, 대조군 23명을 선정하였으나 자료수집 과정에서 수술 후 출혈로 인하여 실험군 2명, 대조군 1명, 수술 당일 환자 상태의 변화로 실험군 2명이, 대조군 1명이 탈락하였고, 대조군 1명은 사후설문조사를 거부하여 최종 실험군 19명, 대조군 20명으로 총 39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3.1 불안

Spielberger[22]의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과 신동균[23]이 번역하여 한국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표준화시킨 도구 중 수술이라는 상황에 맞는 상태불안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상태불안 20문항은 긍정적 문항 10개와 부정적 문항 10개로 구성되며,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정택과 신동균[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5이었다.

3.2 불확실성

Mishel[24]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조옥희[25]가 수정·보완한 MUIS(The 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Scale) 중 “나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을 때 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다”는 항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제외하고 19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75이었다.

3.3 간호만족도 측정도구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김영순[26]이 사용한 간호만족

도 측정도구 중 류경과 조숙희[27]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간호의 교육적인 측면에 대한 간호만족도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만족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류경과 조숙희[2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0이었다.

3.4 정보제공 교육자료 개발 및 적용

실험군에게 제공된 정보제공 교육자료의 내용은 문헌고찰 및 연구자의 임상경험과 이비인후과 수간호사 1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의 자문을 구하여 편도선 절제술 수술과정 및 퇴원 후 간호 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대대로 교육 자료인 소책자를 구성하였다. 소책자 ‘편도선 절제술 환아를 위한 교육지’는 만성 비후성 편도선염에 대한 정의와 증상, 편도선 절제술에 대한 정의, 수술 전 교육내용, 수술 후 주의사항, 수술 후 치료, 퇴원 시기와 외래방문, 퇴원 후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적절한 사진을 삽입하여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총 10페이지의 분량이다[표 1]. 소책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1인과 간호대학 성인간호학 전공 교수 1인의 전문가 집단 타당성을 점검받았다.

표 1. 정보제공 프로그램

구분	구체적인 내용
1. 질환의 정의	- 만성 비후성 편도선염이란? - 만성 비후성 편도선염의 증상은?
2. 수술 전 준비	- 수술 전날 준비사항 (동의서, 금식유지, 손수건 준비) - 수술 당일 아침 준비 (수술복 갈아입기, 양치질, 자연배뇨, 장신구 제거, 수술 전 투약)
3. 수술에 대하여	- 편도선 절제술이란? - 수술 소요시간, 마취방법
4. 수술 후 관리	- 수술 직후 체위, 금식유지, 통증조절방법, ice neck collar 적용 - 수술 후 투약, 금기사항, 식이
5. 퇴원 및 추후 관리	- 퇴원시기와 외래방문시기 - 퇴원 후 주의사항 (퇴원 후 식이, 복약관리, 병원에 꼭 와야 할 증상)

3.5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병실을 방문하여 실험군과 대

조군 모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함께 비밀보장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수술 전날 일반적 특성, 수술 전 불안과 불확실성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사전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이비인후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연구보조원은 이비인후과 병동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4인을 선정하고 실험처치인 수술 전 정보제공 방법을 교육하였다. 교육 후에는 연구보조원들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방법을 직접 교육해 보도록 하여 수정절차를 거쳤다. 사전조사 실시 후 대조군에게는 다음날 수술에 필요한 수술 전 준비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 평균 4분 정도 통상적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실험군에게는 소책자 ‘편도선 절제술 환아를 위한 교육지’를 이용하여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이 직접 간호사실에서 1:1로 개별적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평균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사후조사는 수술 다음날 아침에 불안, 불확실성, 간호만족도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그림 1].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조군 사후조사 후 ‘편도선 절제술 환아를 위한 교육지’ 소책자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여 도중 언제라도 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알려주었다. 또한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고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자 개인노트북에 저장한 후 암호화해서 보관하였다. 실험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조군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였으며, 실험군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0월 2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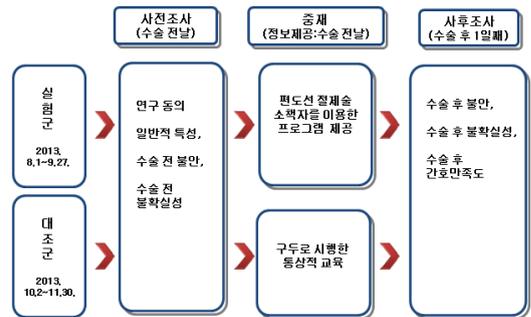


그림 1. 자료수집 방법

3.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 을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두 군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χ^2 -test와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test로 분석하였으며, 교육 전 종속변수에 대한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은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가설검정은 비모수 t-test인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동질성 검증

1.1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동질한 집단임이 확인되었다[표 2].

표 2.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결과 (N=39)

변 수	실험군	대조군	χ^2 or U	p
	(n=19) M±SD or n(%)	(n=20) M±SD or n(%)		
환아 어머니 관련 특성				
나이	35.89±3.97	35.55±2.78	177.5	.728
교육 수준	3(15.8)	-	6.0	.054
	대학졸 이상	17(85.0)		
	대학졸 이상	3(15.0)		
종교	11(57.9)	12(60.0)	2.3	.660
	불교	4(21.1)	3(15.0)	
	기독교	4(21.1)	3(15.0)	
	천주교	-	2(10.0)	
가족 월수입 (만원)	100 미만	1(5.3)	177.0	.728
	100~200 미만	1(5.3)	2(10.0)	
	200~300 미만	5(26.3)	4(20.0)	
	300 이상	12(63.2)	14(70.0)	
직업	있음	9(47.4)	12(60.0)	0.6
	없음	10(52.6)	8(40.0)	.527
환아 관련 특성				
나이	4.55±0.89	4.47±0.84	181.5	.813
수술 경험	있음	2(10.5)	-	2.2
	없음	17(89.5)	20(100.0)	.231
입원 경험	있음	15(78.9)	15(75.0)	0.1
	없음	4(21.1)	5(25.0)	1.00
형제 순위	첫째	14(73.7)	17(85.0)	0.8
	둘째	5(26.3)	3(15.0)	.451

1.2 종속 변수의 동질성 검증결과

주요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동질한 집단임이 확인되었다[표 3].

표 3.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결과 (N=39)

변 수	실험군	대조군	U	p
	(n=19) M±SD	(n=20) M±SD		
불안	41.42 ± 5.10	40.60 ± 6.35	171.5	.607
불확실성	35.11 ± 5.16	32.65 ± 3.87	130.0	.095

2. 연구 가설 검증

2.1 제 1가설

실험군의 사전 불안정도는 41.42점에서 사후 30.68점으로 10.74점 낮아졌고, 대조군의 사전 불안정도는 40.60점에서 사후 34.95점으로 5.65점 낮아졌다. 두 군의 불안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의 불안점수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아(U=104.5, p=.015) “수술 전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은 수술 전 정보제공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불안정도가 낮을 것이다”는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표 4].

2.2 제 2가설

실험군의 사전 불확실성정도는 35.11점에서 사후 25.63점으로 9.48점 낮아졌고, 대조군의 사전 불확실성정도는 32.65점에서 사후 27.95점으로 4.70점 낮아졌다. 두 군의 불확실성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의 불확실성 점수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아(U=83.5, p=.002) “수술 전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은 수술 전 정보제공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불확실정도가 낮을 것이다”는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표 4].

2.3 제 3가설

실험군의 사후 간호만족도 정도는 55.11점이었으며, 대조군의 사후 간호만족도 정도는 50.90점으로 “수술 전 정보제공을 받은 실험군은 수술 전 정보제공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간호만족도 정도가 높을 것이다”는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U=109.5, p=.022)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표 4].

표 4. 종속변수의 가설 검증결과 (N=39)

종속 변수	정보 제공 전·후 차이			U	p	
	정보 제공 전 M±SD	정보 제공 후 M±SD	전·후 차이 M±SD			
불안	실험군 (n=19)	41.42 ±5.10	30.68 ±4.97	10.74 ±7.22	104.5	.015
	대조군 (n=20)	40.60 ±6.35	34.95 ±6.27	5.65 ±5.66		
불확실성	실험군 (n=19)	35.11 ±5.15	25.63 ±2.65	9.48 ±4.53	83.5	.002
	대조군 (n=20)	32.65 ±3.87	27.95 ±4.82	4.70 ±4.56		
간호만족도	실험군 (n=19)		55.11 ±5.90		109.5	.022
	대조군 (n=20)		50.90 ±5.39			

IV. 논 의

본 연구는 수술 전 정보제공이 학령전기 편도선 절제술 환자 어머니의 불안, 불확실성 및 수술 후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학령전기 환자 어머니에게 보다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수술 전 정보제공은 학령전기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기관지내시경 검사자를 대상으로 소책자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대상자의 불안이 감소하였다고 한 연구결과[16]와 유사하였다. 또한 만화[28], 사진[29]을 이용한 정보제공이 수술 전 일상적인 간호만을 제공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불안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시각적 정보제공은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간호중재[21]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개심술을 받은 환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전 정보제공 후 불안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30]와 유사하였다. 간호정보제공의 목적이 환자와 그 가족의 정서적 불안감을 완화시키고[31] 간호나 치료와 관련된 절차 또는 감각 및 지시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려줌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32]. 그러므로 환자의 입원과 관련된 두려움, 아직 어리다고 생각되는 학령전기

아동의 수술에 대한 환자 어머니의 불안을 체계적인 수술 전 정보제공을 통해 수술 및 수술 전후 과정에 대해 알고자 하는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33], 회복에 도움을 주어 불안을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수술을 앞둔 환자 어머니와 그 가족에게 수술 전 정보제공이라는 독자적 간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수준에 따라 정확하고 구조화된 간호교육이 계획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 [15][34]에서와 같이 정보제공 만으로는 수술로 경험하게 되는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술 전 정보제공이 학령전기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 어머니의 불확실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슬관절 전치환술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파워포인트와 소책자를 이용한 정보제공이 수술 후 불확실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27], 만성 중이염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소책자를 이용하여 수술 전 간호정보제공이 수술 후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35]와 유사하였다. 불확실성은 질병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불안감, 질병자체로 인한 불편감 등에 의해 야기되는데[24], 명료한 정보제공은 수술 환자와 가족의 불확실한 감정을 감소시킨다[6]. 또한 환자와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는 모호성, 복잡성, 정보결핍성 그리고 불예측성 요소들을 감소시킨다[36].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질병에 대한 지식전달과 수술 과정 뿐만 아니라 수술 예후와 경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간호사가 직접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수술 전 정보제공이 학령전기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 어머니의 간호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복부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교육용 비디오를 제공하였을 때 수술 후 교육적 간호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결과[26]와 유사하였다. 또한 개심술 환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보제공을 받은 보호자의 수술 후 간호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30]와도 같았다. 최근 간호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고객만족, 고객감동이 강조되고 있어[15] 수술과 관련된 교육책자를 통한 일관적이고 구조화된 정보제공이 간호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학령전기 환아 어머니의 간호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무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이용한 구조화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술 후 환아의 상태변화로 인하여 충분한 대상자 확보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편도선 절제술을 앞둔 학령전기 환아 어머니에게 수술 전 정보제공은 불안, 불확실성, 간호만족도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 인력의 부족과 가족을 포함한 간호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으로 간호 실무에서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령전기 편도선 절제술 환아 어머니에게 실제적인 수술 전후 간호 및 퇴원 후 가정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수술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수술 전 정보제공이 학령전기 편도선절제술 환아 어머니의 불안, 불확실성 및 수술 후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의 유사실험 연구로서 2013년 8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대조군에게는 통상적인 교육을 구두로 제공하였으며, 실험군에게는 소책자를 이용하여 1:1로 개별적 정보제공을 한 후 중재의 효과를 측정할 결과, 불안, 불확실성 및 수술 후 간호만족도에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수술 전 정보제공은 학령전기 편도선절제술 환아 어머니의 불안, 불확실성 및 수술 후 간호만족도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책자를 이

용한 정보제공의 효과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한 정보제공의 효과검증을 제언한다.

참고 문헌

- [1] 안희영, *임상이비인후과학*, 군자출판사, 2005.
- [2]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_WBDDG0207/
- [3] M. Kanerva, P. Tarkkila, and A. Pitkaranta, "Day-case tonsillectomy in children: parental attitudes and consultation r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ediatric Otorhinolaryngology*, Vol.67, No.7, pp.777-784, 2003.
- [4] 김명숙, "계획된 수술 전 교육이 수술 후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임상 실험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14권, 제2호, pp.38-45, 1984.
- [5] 홍경자, 안채순, 조경미, 남은숙, 유경희, 안혜영, 이영희, 임지영, 백경선, *아동간호학 I*, 수문사, 2002.
- [6] 이내영,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수술 전 절차정보제공이 수술 후 통증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7] 홍희정, 이명선, "수술대기실 환자현황판을 이용한 수술진행 정보제공이 환아 어머니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제16권, 제3호, pp.388-397, 2004.
- [8] 송지호, 조결자, 박은숙, 김미원, 박호란, *아동간호학*, 현문사, 2008.
- [9] 유정숙, 신연희, 윤선희, 정제현, 고경숙, 김유정, "소아개심술에 대한 체계적 간호정보 제공이 환아 부모의 불안, 지식감정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임상간호연구*, 제7권, 제2호, pp.144-157, 2001.
- [10] 김미예, "정보적 지지간호가 심장병 환아 어머니의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경북간호과학지*, 제2권, 제2호, pp.25-36, 1998.
- [11] R. L. Calvin and P. L. Lane, "Perioperative

- uncertainty and state anxiety of orthopaedicsurgical patients," *Orthopaedic Nursing*, Vol.18, No.6, pp.61-66, 1999.
- [12] M. H. Mishel, and C. J. Braden, "Finding meaning: Antecedents of uncertainty," *Nursing Research*, Vol.37, No.2, pp.98-103, 1988.
- [13] 신선미, 이은남, 강지연, "암환자 가족이 지각하는 수술 대기 중 불안과 불확실성 및 의료인의 지지," *종양간호학회지*, 제6권, 제2호, pp.15-26, 2006.
- [14] 최정훈, 김주애, 홍남순, "사전 간호정보제공과 단문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제공이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불안 및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임상간호연구*, 제19권, 제3호, pp.383-394, 2013.
- [15] 김현정, *수술 전 정보제공이 수술 후 통증과 불안,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을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6] 장영미, 한진숙, "사전정보제공과 진정제투여가 기관지내시경 검사 대상자의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9호, pp.4061-4067, 2011.
- [17] 손경희, 이갑녀, 김남희, "소책자를 이용한 정보제공이 입원한 장내시경 검사 대상자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9권, 제1호, pp.23-29, 2013.
- [18] 성미혜, 이숙희, 탁기천, "입원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7권, 제2호, pp.217-231, 2003.
- [19] 구미지, 김명희, 황선경, "개심술 환아 어머니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식, 불안 및 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제21권, 제6호, pp.628-638, 2009.
- [20] 김량순, 박인혜, "일 대학병원 암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 *종양간호학회지*, 제6권, 제2호, pp.66-75, 2006.
- [21] 이민희, *시각적 정보제공이 편도선절제술 환아와 어머니의 불안 및 환아 역할행위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22] C. D. Spielberger, *Anxiety on emotional state,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I*,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 [23] 김정택, 신동균,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제21권, 제11호, pp.69-75, 1978.
- [24] M. H. Mishel, "The measurement of uncertainty and stress in illness," *Nursing Research*, Vol.30, No.5, pp.258-263, 1981.
- [25] 조옥희, "유방절제술 환자의 불확실성, 불안 및 대처방안," *대한간호학회지*, 제30권, 제4호, pp.1006-1017, 2000.
- [26] 김영순, *비디오를 이용한 수술 환자 교육이 수술 후 폐기능 회복, 수면 및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27] 류경, 조숙희, "시각적 정보제공이 슬관절 전치환술 노인환자의 수술 후 불안, 불확실성 및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근관절건강학회지*, 제22권, 제1호, pp.48-56, 2015.
- [28] 박선남, "만화를 이용한 정보제공이 편도선절제술 환아의 수술 전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28권, 제2호, pp.490-497, 1998.
- [29] 구현영, 조연정, 김옥희, 박호란, "사진을 이용한 정보제공이 아동과 부모의 수술 전 불안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제13권, 제3호, pp.273-281, 2007.
- [30] 김윤경, 진은미, "지리적 간호중재가 개심술 환아 어머니의 불안 및 간호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제19권, 제3호, pp.459-469, 2007.
- [31] K. Macdonald, M. Latimer, and N. Drisdelle, "Determining the impact of a surgical liaison nurse role in the paediatric operation room," *Canadian Operation Room Nursing Journal*, Vol.24, No.1, pp.7-36, 2006.
- [32] 임정순, 정복례, "정보제공 방법에 따른 암수술 환자 가족의 간호요구 만족도와 불안," *종양간호학회지*, 제7권, 제2호, pp.162-168, 2007.
- [33] 이현수, 김경희, "수술 전 환자의 정서적 상태와 사회적 지지가 수술 후 통증에 미치는 영향," *중*

양간호논문집, 제6권, 제1호, pp.101-111, 2002.

- [34] 황연자, 박연환, 박인선, 김남이, 김정미, 김진, “CD-ROM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이 단기 입원 수술환자의 수술 전 불안과 수술 후 자가 간호 수행을 위한 지식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pp.82-89, 2004.
- [35] 김은영, 수술 전 간호정보제공이 만성중이염 수술환자의 수술 후 불확실성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 을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6] 김정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 성원사, 1992.

저 자 소 개

정 경 숙(Kyeong-Sook Jeong)

정회원



- 2007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중앙, 건강증진행위

박 진 옥(Jin-Ock Park)

정회원



- 2002년 2월 :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과정 중

<관심분야> : 간호관리(조직), 아동의 자가간호수행